JENESYS 2024

한국청년방일단 (제3~5단) 초청 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JENESYS)'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선발된 한국의 고등학생 등을 초청하여 주제에 관한 강의 청강, 학교방문, 홈스테이, 시찰 등을 통해 일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향후 일한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 등 (단장 3명, 인솔 3명 포함) 총 100명

【방문지】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2월4일 (화요일) (제 3 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2월8일 (토요일) (제 4 ~ 5 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청 프로그램:

2월11일 (화요일)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 입국

2월12일 (수요일) 오리엔테이션

【강의】 외무성 '새로운 일한관계에 대하여'

【예방】 구마모토현청 【강의】 '구마모토 지진 복구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하여'

【시찰】 구마모토성

2월13일 (목요일) < 제 3 ~ 4 단 >

【시찰】 스이젠지 조주엔

【학교방문・교류】 센슈대학 다마나 고등학교

< 제 5 단 >

나가사키현으로 이동, 【시찰】 미나미시마바라시 아트빌리지・시라키노, 아리마 기리시탄 유산 기념관, 세계유산 '하라성 옛터'

2월14일 (금요일) <제 3 ~ 4 단>

미야자키현으로 이동, 【교류・테마 시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화와 전설이 깃든 다카치호 사적 탐방(아마노이와토 신사, 아마노야스가와라, 다카치호 신사, 다카치호 협곡 등)

< 제 5 단 >

【학교방문・교류】 나가사키현립 고오카 고등학교

【강의】 '미나미시마바라 지역의 매력에 대하여'

<전원>

【교류】홈스테이 대면식

2월15일 (토요일) 종일 홈스테이

2월16일 (일요일) 홈스테이 해산식

<제 3～4 단>

【문화체험】다카치호 향토 요리 '갓포도리' 만들기

【테마 시찰】'백제왕 전설'과 '백제 마을' 탐방 (해설사 동행)

<제 5 단>

【시찰】오우라 천주당, 구라바엔

【테마 시찰】일본의 평화교육 (나가사키원폭자료관,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평화공원)

【강의】피폭체험 강연

2월17일 (월요일) <제 3～4 단>

【예방】미야자키현청,【강의】'미야자키현의 개요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하여'

【테마 시찰】아오시마신사

<제 5 단>

【예방】나가사키현청,【강의】'나가사키현과 한국과의 교류'

'일한 해협 연안 현·시·도 수산 교류 회의에 대하여' '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한 일한 교류에 대하여'

사가현으로 이동, 【테마 시찰】 일한 교류의 발자취 '부산 신사, 도잔 신사'

2월18일 (화요일) <제 3～4 단>

【테마 시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 '오비 성하마을'

<제 5 단>

【테마 시찰】 한일 교류의 발자취 '나고야성(名護屋城) 박물관'

후쿠오카현으로 이동

<전원> 성과 보고회 (방일성과・귀국 후 활동계획 발표)

2월19일 (수요일) 미야자키 국제공항, 가고시마 국제공항,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5년2월12일【강의】외무성 '새로운 일한관계에 대하여'	2025년2월12일【예방】구마모토현청【강의】'구마모토 지진 복구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하여'

2025년2월13일【학교방문・교류】센슈대학 다마나 고등학교	2025년2월14일【학교방문・교류】나가사키현립 고오카 고등학교
2025년2월16일【교류】홈스테이 해산식	2025년2월16일【시찰】나가사키원폭자료관
2025년2월17일【예방】미야자키현청【강의】‘미야자키현의 개요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하여’	2025년2월17일【예방】나가사키현청【강의】‘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한 일한 교류에 대하여’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고등학생**

이번 방일단의 주제는 ‘일본 신화와 전설의 고향 탐방’이었는데, 수많은 신사를 시찰하며 일본의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신사는 어디나 비슷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찰할 때마다 다른 신을 모시고 있어서, 신사가 일본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현청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의 세부 사항과 직면한 문제 등도 배웠고, 노베오카라는 소도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현지에 사는 가족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 한국 고등학생

구마모토성과 각지의 신사 등을 둘러보면서 일본에서는 문화재 보관 및 복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 8박 9일을 보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우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일본을 방문하기 전보다 일본식 예의범절과 각 지역의 문화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한국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민가에서 직접 생활하는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일본어로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대화하며 생활하는 동안 일본어 실력이 향상된 것도 기뻤다. 고구마 굽기, 장작패기 등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과 일본 가정식 요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일본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4. 일본 측 감상(발췌)

◆ 구마모토현 구마몬국 국제과

구마모토현은 한국의 충청남도와 1983년부터 42년간 행정간, 청소년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실시해 왔으며, 역사・문화적으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구마모토현의 매력 (자연, 'ONE PIECE 구마모토 부흥 프로젝트', 구마몬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방일단 분들도 열심히 경청해 주셨다. 또한, 구마몬도 등장하여 방일단 여러분과 함께 교류했고, 현청 앞의 루피 동상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마모토, 나아가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되셨다면 기쁘겠다.

◆ 미야자키현 상공관광노동부 관광경제교류국 국제경제・교류과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야자키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 미야자키현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그 중 하나로 백제의 왕이 미야자키현에 정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시와스마쓰리'가 있다. 미야자키현에는 이번 방문에서 미처 체험하지 못 한 매력이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 부디 서울과 미야자키현을 연결하는 직항편을 이용해 다시 방문해 주었으면 한다.

◆ 나가사키현립 고오카 고등학교 관계자

본교 글로컬코스 1, 2학년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주도의 교류회와 수업 체험 등을 통해 본교 학생들도 방일단 분들도 많은 자극을 받은 듯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류가 되었다. 서로의 언어를 사용하며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일한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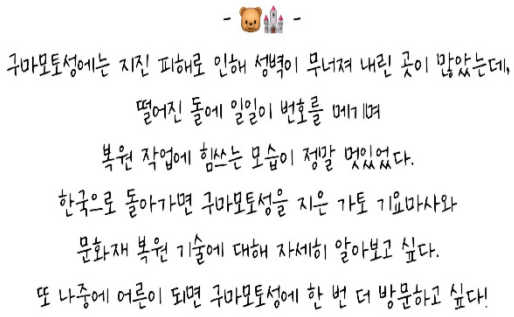
◆ 미야자키현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초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한국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처음이라 만나기 전까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벌써 보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마치 가족을 보내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준 것도 기뻤다. 학생 모두가 착하고 일본어도 잘해서 이런 교류라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시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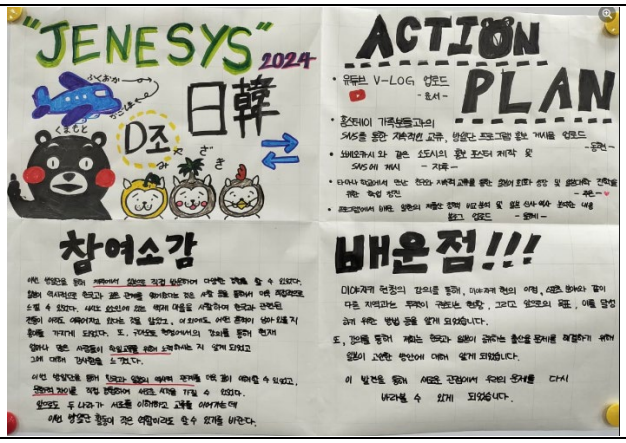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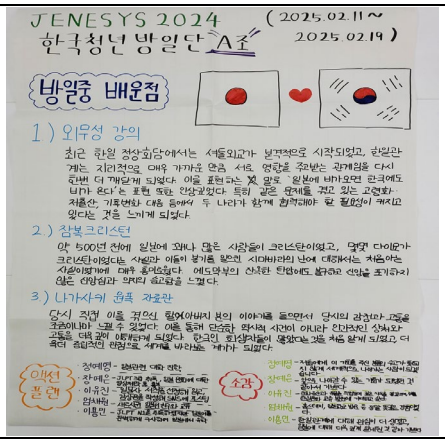
이번에 3명의 여고생들이 머물렀는데, 모두 우수하고 일본어로 대화도 가능해서 우리도 매우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예의 바르며 일본의 문화, 역사, 언어를 배우려는 자세에 감탄했다.

5. 참가자 대외 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2025년2월12일 (블로그 발췌)
구마모토성에는 지진 피해로 인해 무너진 성벽이 많았는데, 떨어진 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 복원 작업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구마모토성을 지은 가토 기요마사와 문화재 복원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또 어른이 되면 구마모토성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다.</td>
<td>2025년2월13일 (Instagram)
한국도 전통 건축물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역사 깊은 신사와 사찰이 현대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공존하고 있어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생활 속에 스며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td>
</tr>
<tr>
<td>
</td>
<td>
</td>
</tr>
<tr>
<td>2025년2월13일 (블로그 발췌)
(학교 방문으로 방문한) 센슈대학 구마모토 다마나고등학교에서는 각 부활동의 멋진 무대 (취</td>
<td>2025년2월16일 (Instagram)
원폭자료관은 단순한 역사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에게</td>
</tr>
</table>

주악부, 유도부, 검도부 등)를 보며 다시 한 번 일본과 한국의 동아리 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일본의 동아리 활동에서는 인스타그램 등을 금지할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진지하게 임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회 출전,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런 일본의 동아리 활동을 한국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마나 고등학교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내 동아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었다.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미래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긴 뜻깊은 경험이었다.
 とぴっく 熊本市 ●韓国青年訪日団が来熊 12、13の両日、約100人が熊本県庁や熊本城などを訪ねた。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が実施する事業の一環。韓国全土から選ばれた高校生が、熊本のほか宮崎、長崎、佐賀の各県を訪問。熊本県庁では、県の人口や特産物、歴史的建築物などについて担当者が説明。くまモンも登場し、高校生たちが歓声を上げて写真や動画を撮影していた。李吉振（イ・ギルジン）さん(17)は「地域の特徴や魅力と、それを生かしたPRについて幅広く学びたい」と話していた。 熊本県について、県の担当者から説明を受ける韓国の高校生ら＝12日、県庁	 韓国の高校生を歓迎 民泊の代表者らと対面式 延岡 日本各地で現地の文化などを学ぶ「在韓公館選抜韓国青年訪日団」と訪問団を受け入れる民泊の代表者の対面式が、14日に延岡市社会教育センターであった。韓国・済州（チェジュ）島から高校1～3年生28人が来延。2泊3日で延岡市内を観光した。主催は、外務省から委託を受けた東京都の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古賀信行会長）。 在韓公館選抜韓国青年訪日団は、在韓国大使館、在釜山総領事館、在済州総領事館が選抜した韓国人学生らで構成する訪問団。「日本を感じる」をテーマにさまざまな地を訪れ、文化体験などを通して地域の魅力に触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今回来日したのは、第3、第4訪問団。熊本観光を終え、14日に第3団が高千穂入り、第4団が延岡入りした。 対面式では、寝食を共にする市内7カ所の民泊代表者と顔合わせ。主催者から各民泊の紹介と日程終了後の集合場所の確認などがあった。延岡滞在中にどのような体験をするかは、民泊代表者らに一任されているという。 それぞれの宿泊場所への出発を前に、代表生徒のハン・ションさん（済州外国語高校2年）が「日本の家庭での生活を体験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きました。文化だけでなく、ホストファミリーの皆さんとも心を近づけたい。家族の一員のように過ごせたらうれしいです」と日本語であいさつ。3～5人の班に分かれて出発した。 第4団は延岡での日程を終えた後、高千穂で第3団と合流。その後、美郷町と宮崎市にも滞在したという。 延岡を訪れた韓国人学生と民泊代表者との対面式＝14日、市社会教育センター
2025년2월21일 (구마모토일일신문) '한국청년방일단 구마모토현 방문'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현청에서 현의 인구, 특산품,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강연을 듣는 모습을 학생 인터뷰와 함께 소개.	2025년2월25일 (석간 데일리신문사) 주한 일본 정부공관이 선발한 한국청년방일단의 취지와 일정 개요와 함께,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에서 실시한 홈스테이 대면식의 모습을 학생 인사 내용과 함께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 내용 기재)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성과 발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강의와 시찰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한일 양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외무성, 각 현청 강의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미래의 한일관계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을 통해 일본의 생활문화와 학교문화, 일본인의 세심한 배려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고, '일본의 신화와 전설의 고향 탐방'이라는 주제에 따른 각 시찰을 통해 일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액션플랜】
・'백제왕 전설'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시와스 마쓰리' 만화를 입수했기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배운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SNS로 소개한다.
・방일단에서 만난 동세대 친구들과 호스트 패밀리와의 교류를 지속한다.
・이번에 방문한 다양한 소도시의 매력을 홍보해 나간다.</td>
<td>【성과 발표】
・외무성 강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다시금 느꼈고, 저출산 고령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원폭자료관에서 피폭 체험 강연을 통해 원폭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생생한 상처와 고통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 희생자가 많았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어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현대적인 도시 안에 수많은 전통이 공존하고, 자연을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배웠다.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 방문을 통해 한일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자체와 지자체, 학교와 학교, 사람과 사람처럼 세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액션플랜】
・일본 문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일본사 관련 서적을 읽고 감상문을 SNS에 게시한다.
・일본 대학에 진학해 한국과 일본의 예술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td>
</tr>
</table>

・일본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한국의 동아리 활동에 참고한다. ・JLPT 시험 응시 등 일본어 학습에 더욱 힘을 쏟는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후 SNS에 게시한다.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피폭 체험 강연의 내용을 공유해 나간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